

초기사림과 문인의 이미지 형성 과정

- 한 인간의 복원과 조선전기 지성사에 대한 반성적 이해를 위하여

김보경*

<차례>

1. 들어가며
2. 발단, 박한주에 대한 몇 가지 의문
3. 박한주 현양사업의 추이와 이미지 형성 과정
 - 1) 함안의 묘역 정비와 충신의 표상화
 - 2) 난후 향촌질서 정비와 도학적 재평가 작업
 - 3) 예림서원·여표비를 통한 점필재의 직전화
 - 4) 박수춘과의 결합, 가문 현양과 도통의 창출
4. 마무리 그리고 남은 문제들

<국문초록>

迂拙齋 朴漢柱(1459-1504)는 金宗直의 門人으로, 조선전기 지성의 한 면목을 엿보게 해 줄 뿐만 아니라 初期士林派 문인의 이미지 형성 과정을 흥미롭게 보여 준다.

박한주 생애자료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그의 외손 周博이 찬한 行狀이다. 이 글에서는 아직 특정 이데올로기로 규격화하지 않은 느슨한 박한주를 볼 수 있다. 현양사업의 추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먼저 임란 직전 鄭述가 함안의 묘소를 정비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는 충신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충신의 표상 위에 도학자의 표상이 더해지는데 후자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난후에는 밀양의 향촌질서를 재정비하는 작업과 연동되어 현양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박한주는 김종직과 연결되어 도학적 관점에서 재평가되었다. 17세기 중반을 전후해서는 박한주 현양이 禮林書院·閭表碑 등 사회적 표식의 형태로 추진되는 가운데 김종직 도학의 嫡傳化가 시도되었다. 18세기 현양사업의 특징은 박

* 인제대학교 기초대학 조교수

한주의 죽손 朴壽春과 결합되어 전개된 것이다. 그중 南岡書院 請額疏는 국가적 공인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道統의 관점에서 박한주의 위상을 재정의하였다.

도학자 박한주를 만드는 데는 현양사업의 주체들 즉 密陽 士林의 의지, 밀양 박씨 문중의 노력, 그리고 退溪-寒岡 연원 학파의 협조가 공동으로 작용했다. 유의할 것은 도학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종직이나 金宏弼·鄭汝昌과 과도하게 결합, 명명되면서 오히려 박한주의 실체가 왜소하게 제약되었다는 점이다.

박한주가 남긴 작품을 돌아보면 ‘유교국가의 비전과 도덕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분투’라는 주제의식을 문학적 역량을 다해 형상화하고 있는 ‘글 잘 쓰는 사람’ 박한주를 만나게 된다. 經術과 文才 어느 한쪽으로는 그의 온전한 얼굴을 복원할 수 없다. 性理 학문을 익히는 박한주, 道·佛書도 버리지 않은 박한주, 『楚辭』 읽기를 좋아하고 글을 잘 썼던 박한주. 이것을 아우른 모습이야말로 당대 생생하게 살아있던 실존으로서의 박한주였으리라.

우리가 기록/기억하고 있는 그들은 도학, 도통, 문묘, 서원의 이름으로 기획된 얼굴이 아닌지, 또 지금 우리는 다시 그들을 ‘초기사림파’라는 이름으로 분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특히 박한주의 경우 김종직과 김굉필·정여창에게 강하게 결박된 채 기록/기억되어 왔으므로 이중으로 왜소화(또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박한주 연구에서 이 점이 각별히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초기사림파, 박한주,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현양사업, 이미지 형성 과정, 충신, 도학자

1. 들어가며

본고는 초기사림파 문인의 이미지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역사적 실존으로서 한 개인이 어떤 선택과 요구에 의해 초기사림파 문인으로서 이미지가 형성되어 가는지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 선택한 인물은 迂拙齋 朴漢柱(1459~1504)이다.

박한주는 密陽 朴氏이다. 과거를 통해 벼슬에 나아갔고, 戊午士禍 때 金宗直 문도로 지목되어 처형되었다. 현전하는 작품은 賦 3편과 記 2편에 불과하고, 역사적 지명도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¹⁾ 말하자면 그는 역사의 본문에서 거의 미끄러져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가 조선전기 지성의 한 면목을 엿보게 해 줄 뿐만 아니라²⁾ 초기사림파 인물이 어떻게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는지 추고하는 데 흥미로운 보기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박한주를 기억하려 할 때 먼저 소환되는 것은 그 자신보다는 강력한 師友들 즉 스승 김종직과 동문 寒暄堂 金宏弼, 一寶 鄭汝昌의 이름이다. 金駟孫이 “박한주는 경상도 유생으로 수학했다.”³⁾라고 했거니와, 박한주는 경상도, 밀양이라는 지역적 연고를 매개로 김종직 문하에 들어 수학했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고 출사한 뒤에도 김종직과 교류를 지속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17세기 밀양 禮林書院에 김종직의 동쪽에 배향된 이후에는 이것이 그를 기록/기억하는 중요한 타이틀이 되었다. 한훤파는 김종직 문하에서 수학하며 교유한 것으로 전한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김굉필과 『小學』을 배웠다 하고, 그와 한·훤 세 사람을 묶어서 ‘畢門三賢’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
- 1) 박한주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김보경, 『유교국가의 비전과 도덕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분투—오졸재 박한주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5집, 동양한학회, 2012, 5~35쪽. 참조
 - 2) 비록 적은 수이지만 박한주의 작품에는, 왕업의 송찬과 유교국가의 비전, 도통 의식과 인에 근거한 덕치주의, 고립의 토포스와 도덕적 승리등 ‘유교국가의 비전과 도덕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분투’라는 대주제가 관류하고 있다. 그는 이 일관되고 집중적인 주제의식을 문학적 역량을 다해 형상화함으로써 조선전기 지성의 토양을 일구는데 한 역할을 담당했다. 김보경(2012), 앞의 논문, 50~52쪽.
 - 3) 『연산군일기』 연산군 4년(1498) 7월 17일. “駟孫對曰, (중략) 朴漢柱, 以慶尙道儒生受業.”

김종직과 한·훤 이 세 사람은 후대의 기록/기억에서 박한주의 정체를 규정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구실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박한주는 이들에게 ‘기대어’ 기록/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性理의 학문 내지 道學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돌아보면 박한주가 처음부터 이런 왜소하고 치우친 존재였던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박한주는 밀양의 강력한 재지사족 밀양 박씨 가문 출신이다. 특히 그는 당시 주도세력의 하나였던 朴文彬 계열로, 문과를 통해 중앙에 진출한 발군의 인물이었다.⁴⁾ 관력을 보면 司憲府 監察, 司諫院 正言·獻納을 역임했고, 외직으로는 昌寧縣監 등을 지내며 치적을 쌓았다. 실록에서도 성종에게 中學祖를 비판한 일, 연산군에게 직언한 일, 任士洪을 논박한 일 등 인상적인 정치적 행적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⁵⁾ 적어도 성종~연산군 시대에는 지역적 기반이나 정치적 활동에서 누구 못지않게 든든하고 활발했던 것이다.

학문과 문학의 성향도 풍문만큼 단선적인 색깔로 보이지 않는다. 박한주와 가까운 시대에 지어진 행장에서, 그가 성리의 학문은 물론이고 장자·노자, 불교의 설까지 섭렵하고, 『楚辭』 읽기를 특히 좋아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⁶⁾ 또한, 실제 작품에서도 낮추어 볼 수 없는 성과가 있었다.

4) 박한주 가계에 대해서는 박병련, 「밀양 지역 향촌지배세력의 형성과 변화」, 박병련 외, 『남명학과와 영남우도의 사립』, 예문서원, 2004, 226~228쪽 참조.

5) 실록에서 박한주 이름으로 검색된 건수는 성종대 10건, 연산군대 26건 등 40건 가까이 된다.

6) 周博, <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行朝奉大夫司諫院獻納兼春秋館記注官知製教迂拙齋朴先生行狀>, 박한주, 『오졸재실기』 권2. “諸子百家·山經地誌·莊老浮屠之說, 亦皆探討以爲窮理之要. 尤喜讀楚辭, 至於庸學兩部, 則手不釋焉.” 周博(1524~1588)은 周世鵬의 양자이다. 주박의 생부는 주세봉의 형 周世鯤이다. 주세곤이 박한주의 사위이니, 주박은 박한주의 외손이 된다. 주박 찬 행장은 이하 ‘<박한주 행장>’으로 칭한다.

비록 수는 적지만, 현전하는 작품들이 보여 주는 유교국가의 비전과 덕치주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분투, 그리고 이를 작품으로 담아내는 역량은 그의 독자적인 문학적 영지이자 성취로서 평가하기에 모자람이 없다는 판단이다.⁷⁾

본고에서 문제의식을 붙이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즉, 강력한 사우로 둘러싸여 기록/기억되고 있는 도학자 박한주와 실제 작품 및 행적으로 더듬어지는 유연한 실존으로서의 박한주, 그 사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앞질러 말하면 전자는 구성된 형상 즉 朴漢柱像이라 할 것이다. 심증만은 아닌 것은 박한주 관련 기록에서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박한주의 사적과 약간의 작품을 수록한 『迂拙齋先生實記』(이하 『오졸재실기』)⁸⁾ 및 여타 자료를 보면 기록들이 어수선하고 때로는 서로 심각하게 부딪히기도 한다. 물론 이런 자료적 난맥은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인물들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흥미롭게 여기는 것은 이런 어수선함과 부딪힘 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의도와 움직임, 곧 박한주 만들기 시도이다. 이것은 박한주 사후 전개된 현양사업의 추이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음이 또한 크게 유의된다.

이에 본고는 먼저 박한주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시대별로 후대의 기록들을 변증해 가면서 그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7) 김보경(2012), 앞의 논문 참조.

8)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迂拙齋先生實記』(2권 1책)를 대본으로 했다. 권두에 鄭宗魯가 쓴 서문이 있다. 권1에는 年譜와 賦, 筭子, 記, 投贈이, 권2에는 行狀, 閭表碑銘, 祭文, 書院奉安文, 戊午黨籍, 門人交遊錄 등과 朴蘭緒가 쓴 발문이 실려 있다. 편찬 경위나 간행 연도는 정확하지 않으나, <발문>으로 미루어 볼 때 車山書院 건립(1958) 뒤에 중간된 듯하다. 이 중간본은 舊本 끝에 서원 창건 사실과 몇 개의 조목을 첨가한 형태이다.

살펴보고자 한다.⁹⁾ 이를 통해 박한주 개인으로는 실존적 형상과 구성된 형상을 추고하여 그 올바른 역사상을 복원하는 데 디딤돌을 놓고, 나아가서는 초기사림과 문인의 성격과 정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데 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¹⁰⁾

2. 발단, 박한주에 대한 몇 가지 의문

① 박한주가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종직의 문인록에 올라 있고 여타 자료에서도 그 증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의미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의구심은 두 사람의 첫 대면(사실이라면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 될 만한)에 관한 엇갈린 기록으로부터 시작된다.

<박한주 연보>에 두 사람의 첫 대면은 성종 5년(1474), 박한주의 나이 16세 때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 (오졸재 선생이) 한훤당 김굉필과 함께 점필재 김 선생의 문하에 노닐며 『상서』를 가르쳐 주길 청했다. 김 선생이 손수 『소학』을 꺼내 주며 말하기를 “광풍제월이 모두 이 안에 있다.”라고 했다. 인하여 시를 지어 권면하기를 (중략) 그 사람의 재주에 따라서 장려하고 나아가게 하는 독실함이 이와 같았다.¹¹⁾

9) 자료는 『오졸재실기』는 물론 그 외 박한주의 생애자료, 관련 문인들의 기록, 기타 문헌자료들을 가능한 대로 포함할 것이다.

10) 본고의 시도는 동일한 문제의식 하에 진행된 다음 연구성과에 힘입고 있다. 이종범, 『무오사림 이원의 내면세계와 조선후기 현양사업의 추이』, 『역사학연구』 39, 호남사학회, 2010.; 정출현, 『추강 남효온의 생애자료에 대한 변증과 탐색 -한 인간의 삶을 재구성하는 집성연보를 편찬하기 위한 서설』, 『대동한문학』 35집, 대동한문학회, 2011.

위에 언급된 시는 『오졸재실기』에 <贈金朴兩秀才>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 시제의 주에 “김은 김굉필이고 ‘박’은 박한주이다.[金卽寒暄堂, 朴卽先生也.]”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이 대면이 <김종직 연보>에는 달리 기록되어 있다.

[나] 한훤이 학업을 청하니 선생이 『소학』을 가르쳐 주면서 이르기를, “진실로 학문에 뜻을 둔다면 의당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광풍제월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였다. 인하여 답시를 짓기를 (하략)¹²⁾

위 글 바로 앞에는 “이 해 모춘에 선생이 김·곽 두 수재에게 답한 시가 있는데, 김은 곧 굉필이고 곽의 이름은 승화이다.”라는 말과 함께 또 한편의 시가 있다.¹³⁾ 『점필재시집』(권9)에는 이 두 시가 한데 수록되었다. 시제는 <答金郭二秀才>이고, 주에 ‘김·곽’은 ‘김굉필·곽승화’라고 적혀 있다.

[가]·[나]가 동일한 에피소드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둘을 비교하면 일부 내용과 글자에 출입이 있다. 그중 눈여겨 볼 것은 김종직과 대면한 사람 곧 시의 受信者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이 대면의 주인공은 단연 김굉필이다. 이 해 그는 21세 청년이었고, 김종직은 44세로 함양 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대면은 김굉필이 김종직

11) <박한주 연보>, 성종 5년(1474), 박한주, 『오졸재실기』 권1. “與寒暄堂金宏弼, 遊於估畢齋金先生之門, 請受尙書. 金先生手抽小學授之曰, 光風霽月, 都在此中. 仍以詩勗之曰, 藍田雲霧玉生烟, 陳榻從今不要縣, 莫把股盤窮佔偏, 須知方寸湛天淵. 其隨才獎進之篤如此.”

12) <김종직 연보>, 성종 5년(1474), 김종직, 『점필재집』. “寒暄請業, 以小學書授之曰, 苟志於學, 宜從此始. 光風霽月, 亦不外此. 因贈答詩曰 (하략)”

13) 위의 글, 같은 해. “是歲暮春間, 先生有答金·郭兩秀才詩, 金卽宏弼, 郭名承華. 有曰, 窮荒何幸遇斯人, 珠貝携來爛熳陳. 好去更尋韓吏部, 愧余衰朽未傾困.”

과 인연을 맺고 『소학』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의 방향을 깨우치게 된 계기로 널리 일컬어지고 있다.¹⁴⁾

문제는 함께 거명된 사람이다. 광승화는 생몰년은 자세치 않으나 이 해를 어름한 시기에 김굉필과 어울린 일이 보인다.¹⁵⁾ <김굉필 사우문인록>, <김종직 문인록>에도 행적이 실려 있다. 『소학』 에피소드가 있는 자료에서는 김굉필 단독 또는 김굉필·광승화가 함께 거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박한주는 [가] 외에는 김굉필과 교유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이 찾아지지 않는다. 또 박한주가 중심이 된 자료(『오졸재실기』와 몇 자료)가 아닌 데서는 『소학』 에피소드에 그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유사한 내용의 텍스트에 ‘김굉필·광승화’ 또는 ‘김굉필·박한주’라는 이름이 나타나되 자료 신뢰도나 출현 빈도에서 전자가 우세하다면 후자에 의심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② 김종직·김굉필의 역사적 대면에 박한주 이름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또 하나 유의할 문제가 있다. 이른바 ‘畢門三賢’의 정체이다. ‘필문삼현’은 점필재 문하의 세 현인이라는 뜻으로, 정여창·김굉필·박한주 세 사람을 이른다.

14) <남효온 사우명행록>에는 김굉필이 김종직으로부터 『소학』의 깨우침을 받은 뒤로 나이 서른이 되도록 『소학』을 읽으며 小學童子로 자처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말은 정구가 지은 김굉필 연보, 장현광이 지은 김굉필 신도비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김굉필 도학을 의미하는 격언으로 전승되었다. 정경주, 『한훤당 김굉필 도학의 전승 양상』, 『영남학』 22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20~21쪽.

15) <김종직 연보>, 성종 8년(1477), 김종직, 『점필재집』. “是歲仲夏, 金秀才宏弼·李生員承彦·元參奉槃·李生員鐵均·郭進士承華·周秀才允昌, 會府之鄉校, 討論墳典, 就門下, 問辨數月矣.”

백옥(정여창)·대유(김굉필)와 함께 점필재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서 당시에 ‘필문삼현’이라고 일컬었다.¹⁶⁾

‘필문삼현’ 운운은 위 『오졸재실기』 <무오당적> 및 <발문>에도 보이고,¹⁷⁾ <정여창 사우문인록>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¹⁸⁾ 그런데 다른 버전의 <무오당적>이나 여타 문인의 기록에서는 이 말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굉필 사우문인록>·<남효온 사우명행록>에는 박한주의 이름이 아예 들어 있지 않다.

‘필문삼현’에 유의하는 것은 이것이 점필재 문하의 세 현인을 뜻할 뿐만 아니라 도학의 계보와 관련되어 해석되기 때문이다.

점필재 문하의 제자들 중에서 도학으로 이름이 나서 위로는 염락과 포은의 연원에 닿고 아래로는 후학의 무궁한 아름다움을 열어준 사람은 김굉필·정여창·박한주이고, 절의와 문장 혹은 정사와 효행으로 세상에 이름이 난 사람은 남효온·김일손·이종준 등이다.【출전은 <점필재사적>】¹⁹⁾

이 글에는 김종직 제자 중 도학 분야에 김굉필·정여창·박한주 세 사람을 들었다. <정여창 사우문인록> 김종직 조에도 “行狀云”이라 하여 같은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 다만 세 사람 외에 兪好仁이 더 들어 있다.²⁰⁾

16) <戊午黨籍>, 박한주, 『오졸재실기』 권2. “與伯勛·大猷, 游學佔畢齋門下, 時稱畢門三賢.”

17) 朴蘭緒, <발문>, 위의 책, 같은 곳. “先生與寒暄一蠹兩先生, 有畢門三賢之稱.”

18) <師友門人錄>, 鄭汝昌, 『一蠹續集』 권4. “朴漢柱(중략) 與先生及金寒暄堂, 學畢齋門下, 時稱畢門三賢.”

19) <言行摭錄>, 박한주, 『오졸재실기』 권2. “佔畢齋門弟之中, 以道學名, 而上接濂洛圃隱之源, 下開後學無疆之休者, 金宏弼·鄭汝昌·朴漢柱, 以節義文章, 或政事孝行名於世者, 南孝溫·金駟孫·李宗準等云.【出佔畢齋事蹟】”

『일두속집』 <讚述>에도 ‘김점필재행장’을 출전으로 했다면서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²¹⁾

그런데 『일두유집』 <事實大略>의 기록은 또 다르다. 여기에는 김일손의 입을 빌려 도학에 김굉필·정여창과 함께 이심원 3인이 거명되고, 박한주의 이름은 어디에도 빠져 있다.²²⁾ 『해동야언』 <무오당적>,²³⁾ 表沿沫(박한주의 사간원 동료) 관련 기록²⁴⁾에도 도학에 정여창·김굉필 두 사람만 거명되었다. 李龜의 『再思堂逸集』에서는 문집 내부에서도 기록이 엇갈린다.²⁵⁾

박한주의 생애자료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전술한 바 박한주의 외손 주박이 찬한 <박한주 행장>이다. 그런데 이른 시기에 집안사람의

20) <師友門人錄>, 정여창, 『一竇續集』 권4 부록. “佔畢齋金先生(중략) 行狀云, 門弟之中, 以道學名, 而上接濂洛圖隱之源, 下開後學無疆之休者, 金宏弼·鄭汝昌·兪好仁·朴漢柱也.”

21) <讚述>, 위의 책, 권3 부록. “(전략)【金佔畢齋行狀下同】” 이 <김점필재행장>을 비롯해 그 앞에 언급한 <행장>(『일두집』 <정여창 사우문인록> ‘김중직 조’, <점필재사적>(『오졸재실기』)은 같은 글로 생각된다. 행장 또는 점필재사적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2) <事實大略>, 성종 11년(1480), 정여창, 『일두유집』 권2. “是歲, 金濯纓嗣孫, 始就金先生學. 嘗謂同門知舊曰, 予性本小許可, 十七歲, 始遊佔翁之門, 得神交十有三人焉. 道德, 金大猷宏弼·鄭伯助汝昌·李伯淵深源, 文章, 姜士浩渾·李胄之胄·李浪翁龜·李仲雍穆, 遺逸, 南伯恭孝溫·辛德優永億·安子挺應世·洪餘慶裕孫, 音律, 李伯源總·李正中貞恩. ○濯纓年譜.”

23) 『海東野言』, <戊午黨籍>. “金宗直字季昱(중략) 鄭汝昌·金宏弼以道學名, 金駟孫·兪好仁·曹偉·李宗準·南孝溫·洪裕孫等以文章顯, 其餘指授蹊徑, 成名者甚衆.”

24) 姜穰, <藍溪表先生墓誌銘【并序】>, 表沿沫, 『濫溪集』, “時一代群彥, 咸萃於畢翁之門, 如寒暄·一蠹, 以道義相講劘, 如金濯纓·曹梅溪·兪潘溪, 以文章相推重.” 표연말과 박한주는 같은 시기에 사간원의 대사간과 헌납으로 있었다.

25) 李龜의 『再思堂逸集』 권2, <事實摭錄>에는 ‘李朝實錄’ 출전으로 “丁卯二月丙子, 政丞等啓曰…”이라 하여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 같은 책 <무오당적> ‘김중직 조’ 도학 부분에는 정여창·김굉필 두 사람만 거명되어 있다.

손에서 나온 생애자료에 『소학』 에피소드나 ‘필문삼현’ 같은 중요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 이것은 어쩌면 후대의 가필이 아닐까. 정여창 관련 기록에 박한주가 특기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정여창 문집의 글은 자료적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여창 사우문인록> 및 <찬술>이 수록된 『일두속집』은 더욱 논란 속에 있기 때문이다.²⁶⁾

본고의 문제의식은 『소학』 에피소드와 필문삼현에 대한 의문, 정확히 말하면 그 ‘기록’에 대한 의문에서 발단되었다. 이것은 박한주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빚어진 흐트러진 흔적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품고, 다음 장에서는 박한주 현양사업의 추이를 따라가면서 박한주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3. 박한주 현양사업의 추이와 이미지 형성 과정

1) 함안의 묘역 정비와 충신의 표상화

박한주 사후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현양사업²⁷⁾은 16세기 후반

26) 정여창의 시문은 무오사화로 거의 일실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차례 그의 유문이나 관련 사적을 수집하여 문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일두유집』 해제』 참조. 한편, 『일두속집』은 1919년 새로 『일두집』을 만들면서 그동안 수집한 시문과 관련 글들을 묶어 펴낸 것이다. 정여창의 대표적 성리 저술로 알려진 <이기설>·<선악천리론>·<입지론>도 여기에 실려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해 이 글들이 정여창이 아닌 호남 유학자 鄭介淸의 글임이 밝혀졌다. 김영우, 『일두 정여창의 성리설 고찰』, 『영남학』 24집, 영남문화연구원, 2013 참조.

27) 박한주는 중종 원년(1506)에 복직되었다. <박한주 연보>와 몇 글에 의하면, 중종 12년(1517) 8월 9일에 金淨·趙光祖 등의 건의로 관직이 추증되었다 한다. 그러나 실록에는 김정·조광조 등의 이름으로 건의한 기록은 없다. 또 선조 원년(1568)에는 柳

함안에서 시작되었다. 박한주의 고향은 밀양이지만, 함안의 廣州 安氏 安孝文의 딸과 혼인하면서 거주지를 함안으로 옮겼고 그의 묘소도 이곳에 있었던 것이다. 이 함안에서 박한주 현양의 첫 물꼬를 튼 사람은 寒岡 鄭逵(1543~1620)이다.

정구는 45세 되는 해인 선조 20년(1587)에 군수로 부임하여 박한주의 묘역을 정비하고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다행히 선배들을 존유하면서 가만히 선생의 풍성을 듣고는 감격하여 가슴속 깊이 느낀 점이 있었다. 이윽고 또 관리가 되어 창산의 현감으로 부임했다. 대개 그곳은 선생이 일찍이 선정을 베풀었던 곳인데 내가 불민한 탓에 선생이 남기신 가르침을 잘 받들지 못한 것이 매우 부끄러웠다. 이제 또 함안의 군수로 부임하여 선생의 묘소가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제 막 도착하여 문묘의 선성을 참배하느라 미처 선생의 묘소를 몸소 찾아가 예를 드리지는 못하고 우선 본 고을의 선비를 보내서 내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정성을 올리게 했다. 묘소 주위의 나무에 흙을 돋우고 묘소를 잘 보호하는 등의 일에 관하여 어찌 감히 특별한 조치를 내려 그 앞을 지나다니는 자들로 하여금 선생의 그 청렴하고 충성스러워 흔들리지 않은 절조에 감탄하고 흥기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²⁸⁾

希春이 서원을 건립하여 제사 모실 것을 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실록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사당의 소재나 서원 이름도 알려진 바가 없다.

- 28) 정구, 『한강집』 권12, <祭朴迂拙齋【漢柱】墓文>1. “逵自早歲, 幸從先進, 竊得聞先生之風, 而有以感慨於中. 既又從事吏役, 奉符昌山. 蓋先生會所遺愛之地, 深愧不敏無以克承餘韻, 茲又試郡於此, 聞先生之墓宅在焉, 方以始至, 告謁先聖, 不及躬致禮於墓下, 擇遣一鄉之士, 伸告平生之忱. 至於封植守獲之宜, 敢不特加修飭, 使東西行而過於是者, 有所歎尚興起於清忠不撓之操也邪?” 『오졸재실기』에는 <祭先生墓文【墓在咸安郡. 萬曆丁亥春, 鄭寒岡宰是郡, 作墓門, 仍祭焉.】>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글자에 약간 출입은 있으나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정구는 김굉필의 외증손으로, 退溪 및 南冥 그리고 남명의 제자인 吳健 문하에서 수학했다. 그는 젊어서부터 박한주의 풍성을 들었다 했거나 와 집안 내력으로라도 박한주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정구는 外職 官歷에서도 박한주와 인연이 있었다. 박한주는 창녕현 감으로 치적을 올린 바 있는데, 정구의 첫 부임지 역시 창녕이었다(재임 1580~1581). 또 그 뒤 박한주 묘소가 있는 함안에 군수로 부임하여 했수로 3년을 있었으니, 박한주와는 여러 모로 인연이 깊었다.

정구는 박한주의 묘역을 정비하고 제사를 지낸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淸忠不撓之操’²⁹⁾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는 개인적 관심을 넘어 지방 수령관으로서의 책무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대개 공의 충성스러운 절개를 이 세상에 밝게 드러나게 하여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아 흥기해야 할 바를 알게 하고자 함이니, 이것은 백성의 수령으로 있는 자로서 그만 둘 수 없는 일입니다.³⁰⁾

또 한 편의 제문이다. 정구는 박한주의 충절을 현양하여 후대 사람들을 흥기하는 것을 수령으로서의 책무임을 명확히 밝혔다. 뒤에 許穆(1595~1682)은 정구의 묘지명을 찬하면서 정구의 함안군수 시절 행적에 대해 “옛 풍속을 묻고 낡은 정치를 닦으며 충신과 효자를 표창하고 오졸자 박한주의 사당을 세우고 효자 다물의 묘를 봉분했다.”³¹⁾라고 기록했다. 이는 박한주 현양이 풍속 교화와 정치 안정의 차원에서 시행되었음을 알려

29) 『오졸재실기』에는 ‘精忠’이라고 되어 있다.

30) 정구, 『한강집』 권12, <祭朴迂拙齋【漢柱】墓文>2. “蓋欲公忠盡之節, 表章於斯世, 而使後來之人, 知有所嚮起, 此在長民者所不容已焉也.”

31) 許穆, 『記言』 권39, <文穆公壙銘>. “特拜咸安郡守, 問舊俗, 修廢政, 表忠臣孝子, 立迂拙子廟, 封多勿墓.”

준다.

수령으로서의 책무의식은 함안의 邑誌를 편찬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구는 부임지마다 그곳의 읍지를 만들었는데, 함안에서도 『함주지』(1587)를 만든 바 있다.

오늘날 기대하는 것은, 이 고을에 수령으로 앉은 자가 앞서 말한 점들을 깊이 경계하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근본에 관해 한층 더 힘쓰되 백성을 편히 해 주고 풍속을 좋게 할 도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니 (중략) 우리 한 고을의 습속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인의 도덕의 위치로 올라가 우리 임금께서 펴시는 문명의 정치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다면, 이것이 곧 오늘날 내가 간곡히 기원하는 바이며 또 내가 한탄하는 깊은 뜻이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³²⁾

『함주지』의 서문이다. 이 책의 편찬 의도는, 수령으로서 安民善俗의 요체를 제공하여 한 고을의 풍속을 仁義 道德의 장으로 끌어올려 국가의 文明 教化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구는 이미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묻혀 있던 사적을 손수 드러내는 작업을 추진했으나, 박한주 현양이 그 일환이었던 것이다. 실제 『함주지』 <寓居>에는 박한주의 행적이 다른 인물보다 길고 자세히 실려 있다. 겹치는 내용으로 보아 <박한주 행장>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³³⁾ <冢墓>에도 박

32) 정구, 『한강집』 권10, <咸州志序>. “唯今日之所望, 則爲長民於茲焉者, 有以深警夫前之所言者, 而審其幾之所在, 益可勉乎其本, 而毋忽於安民善俗之要 (중략) 俾一郡之習俗, 共相躋於仁義道德之場, 而無愧於當宁文明之化, 則斯今日所拳拳者, 而余之所以發嘆之深意, 實在於茲云.”

33) 내용의 압축, 부분적 취사를 감안하면 <박한주 행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글의 끝에 읍지의 성격을 반영한 내용이 덧붙여 있다. 정구, 『咸州志』(『한국읍지총람 조선시대 사찬읍지』 23), <寓居>. “以昌寧名宦, 載勝覽. 自密陽娶安孝文之女, 寓居牛谷刀音谷村.”

한주 묘소가 잘 관리되지 않음을 탄식하고 백성들의 힘을 빌려 묘를 보수 했다는 내용과 함께 앞서 살핀 제문 두 편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정구 혼자가 아닌 李稱·朴齊仁·李澍·吳灑 등 남 명 문하에서 정구와 함께 수학했던 함양 사람들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걸 린 시간은 불과 열흘이었다.³⁴⁾ 이것은 사람들의 자기 향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평소 확보된 자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제군이 군지를 만들자고 한 소원”이 정구의 부임으로 실현되었다고 하겠다.³⁵⁾ 그렇다면 박한주 현양은 정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이면에는 함안 사람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할 수 있다.

한편, 판본에 따라서는 『함주지』 뒤에 <점필재사적>이 부록된 것이 있다. 정구가 김굉필의 외증손이라는 사실, 정구가 박한주 등 무오사화에 희생된 사람들의 기록을 남긴 점, 그리고 이 <점필재사적>을 근거로 하여, 정구가 김종직과 그 후학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보기도 한다.³⁶⁾ 그러나 이 <점필재사적>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논하기로 한다.³⁷⁾

34) 위의 글. “李汝宣稱寬厚長者，朴仲思齊仁隱德有操，李汝涵澍才行俱高，皆余所畏，而每見而每喜者也。吳太源灑，亦以邑中先進，方提督郡學。公私相聚，屢與之從容，相與見余所集山川民物之錄，以爲盍撰而成爲郡志乎？則余志也。意見既符，緝錄斯共，濡翰旬日，功乃告訖。非諸君之誠而勤敏而謹，何其事之速成，而其緒之有條乎？”

35) 위의 글. “凡郡之可考可述可鑑可戒者，無復有餘蘊，諸君之所以爲志者，其斯畢矣。”

36) 김문식, 『16~17세기 한강 정구의 지리지 편찬』, 남명학연구원 편,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518~519쪽.

37) 규장각본(『한국읍지총람 조선시대 사찬읍지』 23) 『함주지』 부록 <점필재사적>에는 『소학』 에피소드에 박한주 이름이 보이고 도학 부분에서도 김굉필·정여창·유호인과 함께 그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다. 그러나 판본에 따라서는 이 글이 붙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같은 내용의 글이 후대에 ‘安珮 찬’으로 인용되고 있어 글의 작성 시기와 저자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갖게 한다. 이 글에 정몽주-길재-김종직-김굉필·

정구 이후에도 함안에서 박한주의 충절을 포양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광해군 9년(1617)에 박한주는 趙純(?~1398)·趙宗道(1537~1597)와 함께 함안의 德巖書院에 봉안되었다. 조순·조종도는 함안 조씨로, 충절로 이름 높은 인물이다. 여기에 박한주가 함께 배향된 것이다. 이때 봉안문을 친술한 사람은 吳汝機(1579~1635)이다. 오여발은, 정구를 도와 『함주지』를 편찬한 오운의 아들이다. 봉안문은 전체적으로 충절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³⁸⁾

한편, 덕암서원이 건립된 그 해에 趙任道(1585~1664)는 박한주의 충절을 읊은 三綱絕句를 지었다. 조임도는 조종도의 삼중제이다.

당시 폐조에는 법도가 무너졌는데
죽음 두려워 뉘 감히 허물 규탄할까만.
홀로 직간하여 끝내 변치 않았으니
그 곧은 절개는 용방과 나란하여라.

廢朝當日憲章顛 怖死人誰敢糾愆
獨立抗言終不變 龍逢直節可齊肩³⁹⁾

시의 원제는 <三綱九絕句【丁巳秋】>이다.⁴⁰⁾ 함안의 충신·효자·절

정여창으로 이어지는 학통이 제시되어 있는 것도 의문이 드는 점이다. 정몽주, 김중직·김굉필 관계에 대한 정구의 견해는 우경섭, 『한강 정구의 학문 연원과 도통적 위상』, 남명학연구원 편,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49~53쪽 참조. 정구 자신이 펴낸 <김굉필 사우문인록>(1574)에 박한주의 『소학』 운운은커녕 박한주의 이름이 아예 들어 있지 않은 점, 『오졸재실기』(권2) <言行摭錄>에 정구의 『함주지』가 인용되었으나 『소학』 에피소드가 들어 있지 않은 점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이다.

38) 吳汝機, <德巖書院奉安文【院在咸安郡】>, 박한주, 『오졸재실기』 권2.

39) 趙任道, 『潤松集』 권2, <三綱九絕句>. 제 4구의 ‘直節’이 『오졸재실기』에는 ‘忠節’로 되어 있다.

40) 위의 책, 권4, <三綱九絕句跋>. “光生鄉國，聲振朝野，宜乎是邦之爲嶺南鄒魯

부 각 3인을 기린 것이다. 조임도는 이중 ‘충신’의 한 사람으로 박한주를 읊었다. 그는 박한주의 충절을 夏 나라의 충신 龍逢⁴¹⁾에 견주었다. 주에는 박한주의 충절을 보여 주는 사적이 간략히 적혀 있다.⁴²⁾

조금 더 내려오면 李命培(1672~1736)의 <迂拙子傳>이 눈길을 끈다. 이명배 역시 함안 사람이다. 이 글에서도 정구의 『함주지』를 언급하면서, ‘충의를 권하는 본보기’로서 박한주를 기리고 있다.⁴³⁾

임란 직전 함안에서 정구가 박한주 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박한주는 충절의 인물로서 확고한 자기 표상을 갖게 되었다. 거기에는 함안 사림의 의도가 함께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구에 의해 맺어진 충신의 표상은 이후 박한주를 기록/기억하는 기본 이미지가 되었다. 그리고 충신의 표상이 확립됨으로써 그에 더해 다른 표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⁴⁴⁾

也!” 이 발문은 삼강절구를 지은 의도가 함안을 영남의 추로로 만드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41) 용방은 夏 나라의 충신 關龍逢으로, 桀王의 虐政에 대해 직간했다가 炮烙의 형벌을 받아 죽었다.

42) 조임도 『潤松集』 권2, <三綱九絕句>. “右, 朴獻納漢柱. ○公在諫院, 言事截直, 不避雷霆. 且廷論任士洪姦邪之狀, 燕山大惡之. 戊午禍起, 公以曾遊佔畢齋門, 流配碧潼, 甲子被殺.”

43) 李命培, 『溪先集』 권6, <迂拙子傳>. “今按鄭文穆公所撰咸州誌則公之諫章筵稟, 無非鶉立鳳鳴, 終然就死地, 如鶩從容, 處死神色不變, 豈所謂不畏義死, 不榮幸生者非邪? (중략) 然此非烈丈夫一時忿慨而作也, 實出於大君子濡染學問之力也. 其所以表著天心, 扶持人紀, 爲萬世人臣忠義之勸者, 豈不誠難矣乎哉!” 이명배는 함안 사람으로 이현일의 문인이다. 그가 <오졸자전>을 지은 것은 함안이라는 지역적 연고도 있지만, 그 선조 李仲賢(1449~1508)과 박한주의 인연도 작용했을 것이다. <오졸자전>에는 이명배와 박한주가 ‘同郡莫逆之交’로서 조정에서도 동료로 지냈음이 적혀 있다.

44) 이 점은 정몽주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과 유사하다. 김영두, 『중종대 문묘 중사 논의와 조선 도통의 형성』, 『사학연구』 85집, 한국사학회, 2007, 53쪽.

2) 난후 향촌질서 정비와 도학적 재평가 작업

박한주의 고향 밀양에서는 임병 양란 이후 본격적으로 현양사업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난후 밀양의 향촌질서를 재편하려는 재지사족의 움직임과 연동되어 있었다. 이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 사람으로 菊潭 朴壽春(1572~1652)과 五休子 安珮(1569~1648)을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磬漢 孫起陽의 문인으로 난후 밀양 지역의 학풍을 주도했는데, 그 학문 연원은 정구 연원을 통해 퇴계 학맥에 닿아 있다.⁴⁵⁾

박수춘의 경우 박한주의 족손일 뿐만 아니라 박한주가 살던 마을에 우거했기에 그 관계가 특별했다. 실제로 그의 문집에는 박한주를 기억하거나 흠모한 시문이 여러 편 실려 있다.

더구나 이 한 구역은 바로 오졸자께서 소요하시던 곳이므로 일찍이 정공의 향리에 비견되었건만 지금은 오랑캐의 고을이 되고 말았다. 아! 이 고을 사람으로서 어찌 부끄러운 마음이 없겠는가! 내가 이곳에 복거하는 것은 다만 그윽하고 깊숙한 산수 때문이 아니요 실로 즐용께서 남기신 향기가 아직 이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⁴⁶⁾

<謹書朱文公白鹿洞學規及呂氏鄉約示生徒文>이다. 박수춘은 풍각 현이 깊은 산골에 있어서 풍속이 완악하여 孝悌 禮義를 모르는데 난후에는 더욱 인간의 도리를 상실했다고 탄식했다. 위 인용문은 이어지는 내용이다. 박수춘은 자신이 이곳에 복거하는 것이 단지 산수 때문이 아니라

45) 정경주, 『밀양의 퇴계 학맥』, 『퇴계학과 한국문화』 31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2, 55쪽.

46) 박수춘, 『국담집』 권2, <謹書朱文公白鹿洞學規及呂氏鄉約示生徒文>. “況此一域, 迺迂拙子杖屨之所, 則曾比鄭公之鄉, 今爲蠻貊之邦. 嗟爾縣人, 其無愧怍之心乎! 我之卜居于此者, 非但爲林壑之幽邃, 實取拙翁遺馥尚在故也.”

박한주의 여향을 계승하기 위해서임을 밝혔다. 그리고 옛날처럼 밀양의 풍속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자의 백록동 학규와 여씨향약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⁴⁷⁾

박수춘이 박한주의 무엇을 어느 정도로 존승했는지는 다음 시에 분명하다.

오졸 노인 맑은 향기 이곳에 남았으니
 차산 뿔부리 한 면이 그 옛 터라네.
 공명과 기개 절조는 산처럼 무겁고
 도덕과 문장은 해와 달처럼 빛나네.
 생도는 아직 서원 없음을 탄식하는데
 길손은 오히려 마을 지나며 경의 표하네.
 백세토록 풍성 듣고 다투어 흥기하거니
 하물며 평소 사모한 저야 어떻겠는지요.

拙老清芬此地餘	車岑一面是遺墟
功名氣節丘山重	道德文章日月如
蛾子尙嗟無別院	行人猶式過前閭
聞風百世爭興起	何況平生景慕余 ⁴⁸⁾

<車山感舊【迂拙齋舊居】>이다. 박수춘은 박한주에 대해 功名·氣節·道德·文章 네 가지를 일컬었다. 이는 박한주에 대한 최상의 칭송이며 존승이다. 마지막 구의 ‘景慕’라는 표현은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그는 특히 도학의 관점에서 박한주를 평가하여, 김중직과 박한주가 합

47) 위의 글. “茲與縣中少長，合謀修稷，且以鹿院學規呂氏鄉約爲科條，隨旬朔而講課，分淑慝而懲勸。”

48) 박수춘, 『국담집』 권1, <過車山【在豐角縣，迂拙齋朴先生舊居也】>. 『오졸재실기』에 실린 제목은 ‘車山感舊【迂拙齋舊居】’이다.

계 소요하던 곳을 옮기기도 하고,⁴⁹⁾ 박한주가 김종직 문하에서 한·두와 함께 끊어진 학문을 창도하여 그 학문 연원이 洙泗에 닿아 ‘도덕문장이 제일’이라고 칭송했다.⁵⁰⁾ 이러한 인식은 당시 박수춘과 함께 난후 복구에 힘썼던 손기양의 점필재에 대한 재평가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⁵¹⁾ 흥미롭게도 박수춘 자신은 후대에 또 박한주와 결합되면서 밀양 박씨 가문을 고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⁵²⁾

같은 시기의 안신도 박한주 현양에서 각별히 다루어야 할 인물이다. 그는 광주 안씨이다. 광주 안씨의 安壽 계는 함안을 거쳐서 安普文 대에 밀양으로 이주했다. 안보문의 동생 安孝文의 사위가 바로 박한주이다. 안보문의 아들 安觀는 김종직의 문인이기도 하다.⁵³⁾ 안신은 안구의 후손으로, 정구와 張顯光 문하에서 수업했고, 난후 박수춘 등과 함께 밀양 지역 학풍을 주도했다.⁵⁴⁾

안신의 사업 중 두드러지는 것은 박한주를 李申·卞季良·金宗直·申季誠 등과 함께 밀양 5현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 성과가 <密州五賢行蹟>(이명 <五賢傳>)이다. 安鼎福은 뒤에 안신의 행장을 찬하면서 “(오현은) 밀양의 옛날 덕이 높은 선생들이었는데, 시대가 오래되어 언행이 인물되었으므로 <오현전>을 지어 드러내어 밝혔다[表章].”라고 했다.⁵⁵⁾

49) 위의 책, 같은 곳, <無盡壺【壺在南山之東, 卽佔畢·迂拙兩先生逍遙之地, 而先君重築, 仍爲之齋號.】>.

50) 위의 책, 같은 곳, <車山感舊>. “交遊寒蠹倡絕學, 佔畢門下見而知. 淵源一脈接洙泗, 吾道千年賴不隳. 斯文興起爲己任, 道德文章出等夷.”

51) 장동표, 『17세기 밀양 재지사족 박수춘의 향촌활동과 도통』, 『역사와 경계』 83집, 부산 경남사학회, 2012, 18~19쪽.

52) 이에 대해서는 본고 3의 4) 참조.

53) 박병련, 『밀양 지역 향촌지배세력의 형성과 변화』, 박병련 외, 『남명학과와 영남우도의 사람』, 예문서원, 2004, 247~248쪽.

54) 정경주(2002), 앞의 논문, 55~56쪽.

이것은 <오현전> 찬술이 밀양 향내의 선현들을 현양하는 작업으로 수행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한주는 김종직과 도학이라는 줄기로 단단하게 연결되었다.

[가] 처음에 한훤이 『상서』 배우기를 청하니 공이 손수 『소학』을 주시고 인하여 시를 지어 주시기를 “은나라 반경의 난삽한 글에 몰두하지 말라, 모릅지기 마음 하나 천연처럼 맑게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라고 했다. (중략) 문하의 제자들 중에 도학으로 이름이 나서 위로는 염락과 포은의 연원에 닿고 아래로는 후학의 무궁한 아름다움을 열어준 사람은 김굉필·정여창·유호인·박한주이고, 절의와 문장 혹은 정사와 효행으로 세상에 이름이 난 사람은 남효온·김일손·조위·이철균·이종준(하략)이다.⁵⁶⁾

[나] 자라서는 강개하게 큰 뜻을 품어서 옛 성현과 같이 되기를 다짐했다. 김굉필·김일손과 함께 점필재 문하에서 수학했다.⁵⁷⁾

[가]는 김종직 조, [나]는 박한주 조이다. [가]는 전술한 『오졸재실기』 ‘점필재사적’과 일치하는 내용이다.⁵⁸⁾ 한편, 박한주 조는 <박한주 행장>

55) 安鼎福, 『順菴集』 권25, <奉正大夫守軍器寺副正五休堂安公行狀>. “李持平申·下文肅季良·金文忠宗直·朴迂拙漢柱·申松溪季誠, 爲鄉之古德先生, 而世遠言湮, 撰五賢傳, 表章之.”

56) 安珮, 『五休堂集』 권1, <密州五賢行蹟>, ‘金佔畢齋’. “初寒暄, 請學尙書, 公手袖小學授之, 仍贈以詩曰, 莫把殷盤窮佞屈, 須知方寸湛天淵. (중략) 門弟之中, 以道學名. 而上接濂洛圃隱之源, 下開後學無疆之休者, 金宏弼·鄭汝昌·俞好仁·朴漢柱, 以節義文章, 或政事孝行名於世者, 南孝溫·金駟孫·曹偉·李鐵鈞·李宗準(하략).” 이하 『오휴당집』 <밀주오현행적>의 김종직 조는 ‘오휴당본 <김종직 행적>’이라 칭한다.

57) 위의 글, ‘朴迂拙漢’. “及長, 慷慨有大志, 以古聖賢自期. 與金宏弼金駟孫, 遊學於佔畢齋之門.”

58) 다만 [가]에는 절의와 문장, 정사와 효행에 26인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의 내용과 거의 같다. 다만 “특히 『초사』 읽기를 좋아했고 『중용』과 『대학』 두 책에 이르러서는 손에서 놓지 않았다.”⁵⁹⁾라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박한주 조가 <박한주 행장>을 바탕으로 했다면 김종직 조 역시 저본이 된 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어쩌면 전술한 『함주지』 부록 <점필재사적>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후대에는 대부분 [가]와 동일한 내용의 글이 ‘안신 찬’으로 인용되어 있다.⁶⁰⁾ 『점필재집』에 수록된 행록/행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⁶¹⁾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행록/행장에서 유의할 만한 변개가 보인다. 이는

처음에 한훤과 오졸자가 『상서』 배우기를 청하니 공이 손수 『소학』을 주시고 (중략) 문하의 제자들 중에서 도학으로 이름이 나서 위로는 엄탁과 포은의 연원에 닿고 아래로는 후학의 무궁한 아름다움을 열어준 사람은 김굉필·정여창·유호인·박한주이고, 절의와 문장 혹은 정사와 효행으로 세상에 이름이 난 사람은 남효온·김일손·조위·(중략) 승정 원년 삼월일 봉정대부 수군기시부정 광주 후인 안신이 삼가 짓다.⁶²⁾

‘승정원년’이라는 기록을 받아들이면 안신이 글을 지은 때는 인조 6년

59) 주박, <박한주 행장>. “尤喜讀楚辭，至於庸學兩部，則手不釋焉。”

60) 『함주지』 부록 <점필재사적>과 오휴당본 <김종직 행적>의 선후 및 상호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기약한다.

61) 오휴당본 <김종직 행적>에도 이런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안신, 『오휴당집』 권1, <밀주오현행적>, ‘金佔畢齋’。 “以上載於畢齋集附錄，而題以行狀書之。”

62) 김종직, 『점필재문집』(『이조명현집』 2), 부록 권1, <행록>. “初寒暄迂拙子，請學尙書，公手袖小學授之(중략) 門弟之中，以道學名，而上接濂洛圖隱之源，下開後學無彊之休者，金宏弼·鄭汝昌·兪好仁·朴漢柱，以節義文章，或政事孝行名於世者，南孝溫·金駟孫·曹偉(중략) 崇禎元年三月日，奉正大夫守軍器寺副正，廣州後人安玘謹撰。”

(1628년), 그가 60세 되는 해이다. 위 글을 오후당본 <김종직 행적>과 비교하면, 도학 부분에 박한주가 들어가 있는 것을 포함해 다른 내용은 동일한데, 『소학』 에피소드에 김굉필과 박한주가 나란히 거명된 것이 눈에 띄는 차이이다.

위 글이 수록된 『점필재집』은 기사본이다.⁶³⁾ 기사본은 김종직의 13대손 金埴에 의해 고종 6년(1869)에 밀양 예림서원에서 간행되었다. 여기에 처음으로 연보와 부록이 합부되었는데, 그중 <행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점필재집』에 ‘안신 찬’ 찬 행록/행장이 보이는 것은 기사본 이후인 듯하다. <박한주 연보> 등 『오졸재실기』 수록 글에 보이는 『소학』 에피소드는 이에 의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기사본은 시의 산삭, 門徒의 침입 등 논란이 많아서 자료로 이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⁶⁴⁾ 같은 글임에도 다른 판본에서는 『소학』 에피소드에 박한주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다.⁶⁵⁾ 이를 두루 감안할 때, 『점필재집』 <행록>을 중요한 근거로 박한주를 『소학』과 관련짓고 그를 경학 계열로 분류하는 견해⁶⁶⁾는 재고의 여

63) 본고에서는 『이조명현집』(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제 2집에 수록된 『점필재집』 영인본을 참고했다. 『이조명현집』 수록 『점필재집』은 기축본 시집과 기사본 문집 및 연보, 부록을 합편한 것이다.

64) 기사본은 시집 8권, 문집 2권, 彝尊錄 2권, 연보·문인록·부록 합 9책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기사본은 간행 과정에서 김식이 문집을 마음대로 중간하고 또 문인록에 새로 문인을 추가했다고 하여 분쟁이 야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행록>에는 위에 살핀 것 외에도 김종직의 시호와 관련된 내용이 삽입되거나 김종직의 자녀에 관한 기록이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점필재집 판본을 비교하면서 따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는 후고를 기약한다. 기사본 『점필재집』에 대해서는 김운수, 『점필재집의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35집, 서지학회, 2006 참조.

65) 『점필재집』 기사본(부산대학교 소장) 권8에 ‘행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글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소학』 에피소드에 박한주 이름이 없다. <행장> 끝에는 “崇禎元年三月日後學漢南安埴謹撰”이라고 적혀 있다.

66) 이병휴, 『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212쪽.

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학』 문제는 접어놓고 당시 사업만 본다면, 박수춘과 안신 등 밀양의 제지사족들이 밀양 향내 선현을 추송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방면에 걸쳐 노력했고, 그 성과로서 향내 선현들의 행적 곧 <밀주오현행적>을 펴냈으니, 이는 박한주의 위상을 재평가하는 작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 그것이 후대로 오면서 김종직의 도학 계보를 지지하고 특히 박한주를 김종직과 도학 계보로 맺어 주어 박한주상을 만드는 데 활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3) 예림서원·여표비를 통한 점필재의 적전화

17세기 중반을 전후해서는 박한주 현양사업이 내용과 규모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예림서원과 여표비라는 사회적 표식과 관련된 것으로, 내용적으로나 형태적으로 큰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 것이었다.

이미 임난 이전에 밀양 사림의 청원으로 퇴계의 자문을 받아 德城書院(뒤에 점필서원으로 개칭)이 창건되었다. 서원은 인조 12년(1634) 상남면 예림리로 이관하면서 ‘예림’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때 퇴계, 張顯光(1554~1537), 李玄逸(1627~1704), 조임도 등 당대 유현들의 자문과 사림의 공론이 작용했다. 장현광은 정구의 제자이자 조카사위이고, 조임도는 장현광의 제자이다. 인조 15년(1637)에는 김종직을 주벽으로 박한주를 동배, 申季誠을 서배로 종향했다. 그 뒤 효종 3년(1652)에 예림서원을 크게 중수했다. 이때 장현광의 문인으로 당시 밀양부사로 있던 金應祖(재임 1651~1652)가 서원의 보수, 단장을 주도했다.⁶⁷⁾

67) 예림서원 건립 및 이전에 관해서는 장동표, 『예림서원의 건립 중수와 김종직 추송 활동』, 『역사와 경계』 64집, 부산 경남사학회, 2007 참조.

이와 같은 서원 이건, 종향, 중수 과정에서 많은 글들이 지어졌다. 이를 통해 당시 밀양 사림뿐만 아니라 이에 협조한 朝野 유현들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오졸자와 송계 두 선생을 한 사당에 배향한다면 (점필재) 선생의 덕이 천추토록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의 영령이 무궁토록 영원히 평안하시고 도의 근원이 유장하게 흘러 문풍이 진작될 것입니다.⁶⁸⁾

李而楨(1619~1679)이 인조 12년(1634) 서원을 이건할 때 밀양부사 李惟達에게 올린 글이다. 이이정은 碧珍 李氏로, 전술한 박수춘의 사위이다. 박수춘과 함께 정구를 섬기고 김응조 문하에서 수학했다. 그는 서원 이건에 관한 일을 시종 주관했고, 그밖에 서원이나 김종직·박한주등에 관한 글도 많이 남겼다. 그는 위 글에서 박한주와 신계성이 김종직의 뒤를 이어 사람들을 교화 훈육하여 명성과 문장이 한가지였다 하고,⁶⁹⁾ 새 사당에 두 사람을 함께 배향한다면 김종직의 영령이 외롭지 않을 것임은 물론 도의 근원이 계승되고 문풍이 진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그(밀양 사림)가 박한주를 김종직의 맥을 잇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예림서원 배향과 함께 여표비 찬술도 유의해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여표비는 현재 3편이 전한다. 찬자는 李敏求(1589~1670), 김응조, 그리고 조임도이다. 김응조·조임도는 서원 이건이나 봉안에도 관여했다. 김응조·이민구 찬 여표비는,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박한주의 출생지인

68) 이이정, 『죽파집』 권3, <禮林書院移建呈文>. “迂拙子·松溪兩先生, 陪享於一廟, 則先生之德不孤於千秋, 先生之靈, 永妥於無窮, 而道源流長, 文風日振.”

69) 위의 글. “惟我迂拙朴先生·松溪申先生, 於佔畢先生踵武薰陶, 名業文章, 步趨一路.”

밀양 차산 마을에 세워졌다.

서원 이건을 추진하던 해 부사 이유달이 향리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민구에게 여표비를 청했다. 이민구는 전에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이력이 있었다. 이민구는 글의 앞에 청명의 사언을 쓰고, 중반부에는 박한주의 행적을 적었다. 행적은 <박한주 행장>을 요약한 수준이다.

김응조는 부사로 재임한 이력이 있어 밀양 사림 朴瑠·李而柱 등의 청을 받아 여표비를 지었다. 박류는 박수춘의 아들이고, 이이주는 이이정의 형이다. 박수춘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박한주 여표비 제작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행적 기술은 역시 <박한주 행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⁷⁰⁾ 다만 한·훤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김응조의 글에서 눈길어 가는 것은 여표비 찬술에 대한 인식이다. 이민구는 ‘군자향’·‘고양리’를 언급하여 박한주를 덕 있는 어진 사람으로 평가했다.⁷¹⁾ 비슷한 내용이 이이정의 글에서도 발견된다.⁷²⁾ 그런데 김응조는 ‘공자의 궤리’·‘주자의 고정’ 운운했다.⁷³⁾ 밀양을 곧장 궤리·고정과 등치해 말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것을 의식하며 찬술에 임하고 있음이 주목

70) 김응조의 <次寄密城諸益>에 “오졸재의 행록을 읽고 느낌이 있어 짓다.”라는 주가 달려 있다. 김응조, 『학사집』 권2, <次寄密城諸益>. “守死要存一箇心, 哲人遺訣屬儒林. 書來爲感諸賢意, 三復陳編淚滿襟.【讀迂拙齋行錄有感】” 시제와 내용, ‘행록’이라는 언급으로 보건대 이 시는 여표비 찬술 즈음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71) 李敏求, <贈道承旨迂拙齋朴先生閭表碑銘【并序】>, 박한주, 『오졸재실기』 권2. “漢末崇獎道義爲吏者, 輒命其鄉里以興俊民. 若君子鄉·高陽里者是已, 而士彬彬作焉. 今之密人, 乃能尙德於百餘年之前, 而揭厲乎千萬世之後, 謀諸邑大夫, 顯有茲刻, 裨補王化, 豈淺渺比哉? 而庶乎朴先生之風, 有以激勵之哉?”

72) 이이정, 『죽파집』 권3, <迂拙子朴先生閭表碑事呈道伯文>. “閭之有表, 所以顯俊民, 而式後人者也, 如曰商谷之閭·田獲之門·高陽里·君子鄉者.”

73) 金應祖, 『鶴沙集』 권7, <迂拙齋朴先生閭表銘并序>. “孔之闕里·朱之考亭, 歷千萬世猶流傳, 雖無表焉猶可. 至於從古名賢生斯長斯, 而或多鬱陞無傳, 後之學者, 雖欲撫遺躅挹餘芳, 想像興起而不可得焉, 閭之所以不可以無表尙矣.”

된다.

이는 조임도에게 더 분명한 태도와 내용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폈듯이 조임도는 함안 조씨이다. 그는 이민구·김응조와 달리 박한주와 함안이라는 직접적인 지역적 연고가 있었다.

조임도는 서원 배향 및 여표비 찬술에 모두 관여했다. 먼저, <예림서원 봉안문>부터 살펴본다. 앞부분에는 박한주의 타고난 자질과 사우 관계(점필재, 한·훤)를 말하고 이어 행적을 기술했다. 다음은 이어지는 내용이다.

(전략)

이를 표창 추승함은
한강(정구)에서 시작되었네.
진실로 선생은
우리 도의 빛이시라.
저 금라(함안)를 바라보니
묘소가 그곳에 있네.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여
향 피우고 술잔을 올리네.
더구나 이 밀성은
공자의 켈리임에랴!

(중략)

중앙엔 문간(김종직) 모시고
그 동쪽에 선생 신위 올렸네.
스승과 제자 등급 따라 모셨으니
예법에 참으로 마땅하네.

(하략)⁷⁴⁾

조임도는 박한주 현양이 정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하고 박한주를 ‘우리 도의 빛[吾道之光]’이라고 했다. 함안과 밀양을 함께 언급하되 밀양을 ‘공자의 켈리’라 일컫고 김종직 동쪽에 박한주가 배향된 것에 대해 스승 제자가 등급에 따라 예법에 맞게 모셔진 것이라고 했다. 밀양을 성리학의 본향으로 인식하여 김종직의 위상을 재천명함과 동시에 박한주를 그 직통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여표비에서도 그는 특기할 내용을 남겼다. 조임도의 연보에 의하면 여표비는 그가 56세 되는 해인 인조 18년(1640)에 지어졌다.⁷⁵⁾ 이 비는 함안에 세워졌다.

자라서는 강개하게 큰 뜻을 품어서 옛 성현과 같이 되기를 다짐했다. 한훤당 김굉필과 점필재 문하에서 『상서』를 배웠는데 점필재가 손수 『소학』을 꺼내 주고 시로써 권면했다. 선생이 독실하게 믿고 힘껏 실천했으며 널리 듣고 잘 기억하여 문장과 기절이 ‘두남의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다. (중략) 선생은 젊어서부터 성리의 학문을 독실하게 좋아하여 경전에 침잠하여 쉽없이 부지런히 공부했다. 제자백가·산경·지지도도 모두 탐구하여 이치를 궁구하는 바탕으로 삼았다.⁷⁶⁾

이 글 역시 <박한주 행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비교하면 중

74) 조임도, <禮林書院奉安文>, 박한주, 『오졸재실기』 권2. “表章尊崇, 肇我寒岡. 允矣先生, 吾道之光. 眷彼金羅, 若堂攸在. 人思矜式, 香火以酌. 矧茲密城, 孔氏闕里. (중략) 文簡面南, 靈位其東. 等別師生, 在禮宜然.”

75) <간송선생연보>, 조임도, 『간송집』. “十三年庚辰【先生五十六歲】，撰迂拙子朴先生閭表碑.”

76) 위의 책, 권5, <迂拙子朴先生閭表碑銘并序>. “比長, 慷慨有大志, 以古人自期. 與寒暄遊佔畢門受尙書, 佔畢公手抽小學書與之, 因以詩助之. 先生篤信力行, 博聞彊記, 文章氣節, 稱斗南一人. (중략) 先生自少篤好性理之學, 沈潛經傳, 孜孜不輟. 諸子百家山經地誌, 亦皆探討以資窮理.”

요한 변이가 보인다.⁷⁷⁾ 바로 행장에 없던 『소학』 에피소드가 등장한 것이다. 또한 학문 부분에서는 행장에 있던 장자·노자, 불교의 설을 탐구한 일, 『초사』 읽기를 특히 좋아했던 일 등이 빠져 있다. 이민구가 도·불서를 언급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⁷⁸⁾ 도·불서나 『초사』를 읽는 박한주는, 어쩌면 조임도가 그리고 싶은 박한주상과 맞지 않아서가 아니었을까. 그리하여 여표비에는 『소학』의 가르침을 받고 성리 학문을 탐구하는 학자로서의 박한주만 오롯이 남았다.

한편, 명 부분에서는, 봉안문과 마찬가지로, 김종직 문하에서 한·두와 교류한 일, 함안·밀양에서 사당을 세워 사람이 제사를 받들게 된 일을 말했다.⁷⁹⁾

조임도는 이외에 박한주 관련 시문을 제법 남겼다.⁸⁰⁾ 전술한 <삼강절구>에서는 충신 박한주를 읊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예림서원 배향과 여표비 찬술에 참여하면서 도학자 박한주의 형상을 구성하기에 애썼다. 요컨대, 조임도는 충절과 도학 두 가지 타이틀로 박한주의 형상을 짓되, 박한주에게 도학이라는 이름을 뚜렷하게 씌워 김종직 도학의 적전화

77) 비교를 위해 행장의 해당 부분을 실는다. 주박, <박한주 행장>. “及長，慷慨有大志，以古聖賢自期。與金宏弼金駟孫，遊學於估畢齋之門，篤信力行。博問強記，日誦千萬言，夜以繼晝，學問益就，識見益高，文章氣節，迥出流輩。遠方之士，聞風而起者，亦多。時人稱之曰斗南一人。(중략) 自少篤好性理之學，特立不回頭，沉潛經傳，孜孜不掇，對案觀書，夜深不寐。諸子百家·山經地誌·莊老浮屠之說，亦皆探討以爲窮理之要。尤喜讀楚辭，至於庸學兩部，則手不釋焉。”

78) 이민구, <贈道承旨迂拙齋朴先生閭表碑銘并序>, 박한주, 『오졸재실기』 권2. “雅好性理之說，玩索不廢夜。諸子史堪與，□勝老佛之書，靡不傍穿，以資窮理，而其所篤信力行者，惟庸學二書而已。”

79) 조임도, 『간송집』 권5, <迂拙子朴先生閭表碑銘并序>. “估畢之門，一蠹寒暄，師友淵源。(중략) 咸密揭虔，土執豆籩，崇報永年。刀音小谷，寔公舊卜，尙留餘馥。闡幽垂光，刻此銘章，過者聞香。”

80) <예림서원봉안문>·<여표비명> 외에 <묘우이진고유문>과 <次菊潭車山感舊韻>·<三綱絕句>등의 시를 남겼다.

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도학자 박한주가 충신 박한주를 압도한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조임도가 여표비를 지은 10년쯤 뒤에 나온 밀양 읍지에서 확인된다. 申翊全(1605~1660)은 효종 3년(1652) 밀양부사로 있으면서 『密陽志』를 펴냈다. 여기에서 신익전은 박한주가 연산군에게 직언한 일, 임사홍을 논박한 일, 죽을 때 태연자약하게 임하고 크게 천둥 번개가 쳤다는 일을 적었다.⁸¹⁾ 이것은 줄곧 ‘충신’ 박한주를 기리는 데 인용되었던 일화들이다.

4) 박수춘과의 결합, 가문 현양과 도통의 창출⁸²⁾

18세기 박한주 현양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박수춘과 결합된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박수춘이 박한주의 족손으로 같은 마을에 우거하고 또 박한주를 깊이 존송했기에 두 사람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예컨대, 조임도는 박수춘 시를 차운하여, 박수춘이 차산에 우거함은 우연이 아니라 박한주를 계승하고자 하는 뜻이라면서 도를 중히 여기는 성심에 자신 또한 흥기됨을 읊은 바 있다.⁸³⁾

두 사람의 결합이 규모를 갖추어 현실화한 형태는 숙종 43년(1717) 南岡書院 추향으로 나타났다. 남강서원은 원래 박수춘의 제사를 모시는 곳으로 大丘府 남쪽에 있다. 박한주를 추향할 때 봉안문은 權尙夏(1641~1721)가, 상향문은 閔昌道(1654~?)가 지었다.

81) 申翊全, 『東江遺集』 권16 별록, <密陽志>.

82) ‘도통의 창출’이라는 말은 김영두(2007), 앞의 논문, 51쪽을 참고했다.

83) 조임도, 『간송집』 권1, <次朴景老【壽春】過車山韻懷迂拙先生>.“曠感偏深仰止餘, 仙庄故爾訪遺墟. 於茲嘉應非偶, 也是清風尚凜如. 高蹈孰知潭老隱, 前塵擬繼拙翁間. 吟詩更寓羹牆慕, 重道誠心亦起余.” 『오졸재실기』에는 ‘次菊潭車山感舊韻’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민창도는 박한주에 대해 학문은 김종직을 계승하고 도는 한·훤과 나란하다 하면서 박한주에게 ‘開繼의 공’이 있다고 칭송했다.⁸⁴⁾ 권상하는 한·훤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박한주가 김종직으로부터 誠·敬의 학문을 전해 받았다 하여 김종직·박한주의 사승을 부각했다.⁸⁵⁾ 또 박한주·박수춘에 대해서는 “덕과 도가 나란하다.”라고 했다.⁸⁶⁾ 이것은 박한주·박수춘 두 사람을 결합하여 밀양 박씨 가문을 현양하려는, 특히 도학의 맥락에서 현양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듬해 숙종 44년(1718) 지어진 <南岡書院請額疏>에서 이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표명된다.

청액소는 처음에 영남을 ‘鄒魯之邦’, 대구부를 “영남의 이름난 고을로 진유가 배출되고 문헌도 징험할 만”한 곳이라 하고, 그 예로 박한주·박수춘을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일대의 큰 선비, 백세의 종사”임에도 아직 사액이 없음을 안타까워했다.⁸⁷⁾ 이어서 박한주에 대해, 정구·김응조의 글을 빌려 칭송하고,⁸⁸⁾ 다음과 같이 말한다.

84) 閔昌道, <南岡書院常享文>, 박한주, 『오졸재실기』 권2. “學傳佔畢, 道倣寒蠹. 功存開繼, 德隆今古.”

85) <박한주 행장>에는 “그 행실은 한결같이 경을 위주로 하고 성으로 견지하였다.[其行已一以敬爲主, 而持之以誠.]”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권상하는 “필용을 사사하여, 성과 경의 학문을 전해 받았네.”라고 하여 이 성·경을 명백히 김종직과 연관지었다. 權尙夏, <南岡書院奉安文>, 위의 책, 같은 곳. “逮事畢翁, 學傳誠敬.”

86) 위의 글. “惟此豊山, 繫公鄉井. 舊祀菊潭, 德同道并.”

87) <南岡書院請額疏>, 박한주, 『오졸재실기』 권2. “惟我嶺南素稱鄒魯之邦, 而大丘一府, 實爲嶺南名鄉, 眞儒輩出, 文獻足徵. 而竊惟故戊午名賢, 贈都承旨臣朴漢柱, 有若故崇禎處士, 贈參議臣朴壽春, 實是一代之鴻儒, 百世之宗師. 一道多士, 就其所居之地, 建院以祀者, 多歷年所, 而迄無有宣額之請, 則豈非斯文之所欠, 而士林之所慊也哉. 臣等, 俱以顛蒙末學, 其於先輩之學問道德, 固不敢容議. 而以先正臣鄭述所錄事蹟, 及大司諫臣金應祖所撰碑文, 考其大略, 則朴漢柱, 自少慷慨, 有大志, 篤信力學, 博聞強記, 文章氣節, 迥出流輩.”

88) 위의 글. “大司諫臣金應祖所撰碑文, 考其大略, 則朴漢柱, 自少慷慨, 有大志, 篤信力學, 博聞強記, 文章氣節, 迥出流輩.”

(박한주는) 선정 문경공 김굉필, 문헌공 정여창과 함께 문충공 김종직에게 배웠는데, 김종직은 부친이 김숙자에게서 수학했고, 김숙자는 고려 신하인 길재에게서 배웠습니다. 길재의 학문은 정몽주에게서 얻었는데, 정몽주는 실로 우리 동방 이학의 조종이니 그 학문의 연원이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종직 사적에 이르길 “문하의 제자 중에 도학으로 이름 있어 위로는 염락과 포은의 근원에 접하고, 아래로는 후학을 열어 한없이 아름다운 자는 김굉필·정여창·박한주이다.”라고 했으니, 특별히 김굉필과 정여창 두 신하와 함께 도통의 반열에 함께 일컬어진 것이 이와 같음이 있습니다.⁸⁹⁾

이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도학의 계보, 도통을 명확히 언표하고 있는 점이다. 박한주가 한·두와 함께 김종직에게 배웠다 하고, 거슬러 올라가 동방 이학의 조종 정몽주에게까지 연결했다. 이를 정리하면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여창·박한주의 계보가 수립된다. 그리고 ‘김종직 사적’⁹⁰⁾을 운위하면서 박한주가 한·두와 함께 ‘도통의 반열’에 나란히 올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춘에 대해서는, 박수춘이 박한주의 心學을 얻어 그 道脈의 적전이 되었으며 또한 정구의 문하에 종유하면서 濂洛關閩의 도를 강론했다고 했다.⁹¹⁾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89) 위의 글. “與先正臣文敬公金宏弼, 文獻公鄭汝昌, 遊學於文忠公金宗直, 宗直受學於其父叔滋 叔滋受學於高麗臣吉再. 再之學得於鄭夢周, 夢周實爲吾東理學之祖, 則其學問之淵源, 有自來矣. 是故金宗直事蹟云, 門弟之中, 以道學名, 而上接濂洛關閩之源, 下開後學無疆之休者, 金宏弼鄭汝昌朴漢柱. 其所以特與金鄭兩臣, 併稱於道統之列者, 有如是者.”

90) 여기에서 말하는 ‘김종직 사적’은 <김종직 행적>으로 생각된다. 다만 『소학』 에피소드는 들어 있지 않다.

91) 위의 글. “至於朴壽春, 以漢柱同宗之親, 生於漢柱之後, 居于漢柱之里. 聞風興起, 私淑諸人, 深得漢柱之心學, 嫡傳漢柱之道脈, 究其淵源所自, 則盖有來矣. (중략) 一以古聖賢自期, 潛心性理之書, 踐履眞實之地. 從遊先正臣文穆公鄭述之門, 講論濂洛關閩之道.”

아! 이 두 현인이 도학을 서로 전하고 충효를 온전히 했으니 덕업과 풍절은 세대는 다르나 서로 부합하여 한 사당에 나란히 향사했습니다. (중략) 더구나 박한주는 김굉필·정여창과 동문으로 같은 현인인데, 김굉필·정여창 두 현인은 문묘에 종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고 노닐던 곳에 모두 선액을 받은 사당이 있지만, 박한주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 아직도 선액의 포장을 입지 못했습니다.⁹²⁾

박한주는 한·두와 함께 도통의 반열에 올랐고 박수춘은 박한주의 도맥을 이었으니 두 사람은 도학 전승 관계로 결합된다. 그뿐만 아니라 충·효를 온전히 했다는 점에서도 상통한다. 이로 볼 때 서원에 나란히 향사함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박한주가 한·두와 동문임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두는 문묘에 종사되고 사액되었으나 박한주는 그러하지 못함을 호소하며 사액을 간절히 청했다.

이 청액소는 환급되었으나⁹³⁾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연관된 사업이 이어졌다. 문집 간행이 그것이다. 문집 간행은 남강서원 추향 이후에 이루어진 듯하다. 박수춘의 문집 『국담집』은 그 7세손 朴履周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다. 서문은 박이주의 청으로 鄭宗魯(1738~1816)가 지었다.⁹⁴⁾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18세기 중반 이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⁹⁵⁾

박수춘의 행장은 조임도가, 여표비는 민창도가 지었으니, 박한주 관련

92) 위의 글. “嗚呼! 惟此兩賢, 道學相傳, 忠孝兩全, 德業風節, 異世同符, 一廟齊享. (중략) 而況朴漢柱, 以金宏弼·鄭汝昌等同門, 一體之賢, 金·鄭兩賢則不但從祀文廟, 其所居所遊之地, 皆有宣額之祠, 而漢柱生斯長斯之所, 則尚未蒙宣額之獎.”

93) 위의 글. “【戊戌春, 一道多士, 上章叫闈, 上候不平, 呈政院還出給.】”

94) 鄭宗魯, 『立齋別集』 권4, <菊潭實紀序>. “先生之七世孫履周奉以示余, 求爲序. 遂書如右云.”

95) 한국고전번역원, 『『국담집』 해제』 참조.

시문을 지은 사람이 박수춘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두 사람의 문집 서문을 鄭宗魯(1738~1816) 한 사람이 지은 점이 흥미롭다.

정종로는 鄭經世(1563~1633)의 6세손이다. 『국담집』 서문에 박수춘과 정구·장현광·정경세등이 사우로서 교유한 일이 언급되었거니와, 선대의 인연이 서문 청탁을 수락하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⁹⁶⁾ 그런데 정종로는 박한주의 『오졸재실기』 서문을 짓기도 했다. 이 역시 박이주의 청에 의한 것이었다.⁹⁷⁾ 이는 두 문집 간행이 어떤 관련 속에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박한주에게 초점을 맞추면, 『오졸재실기』와 『입재집』에 실린 서문 사이에서 예사롭지 않은 변이가 발견된다.

대개 이로부터 사람들은 도학을 존송해야 함과 명교를 수호해야 함을 더욱 더 잘 알게 되어서 차라리 군자로서 죽을지언정 소인으로서 살아남기를 원하지 않으며 차라리 군자로서 화를 입을지언정 소인으로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천하가 취하고 버리는 것이 응당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니, 하늘의 결정이란 것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른바 화와 복은 그가 군자가 되고 소인이 되는 때부터 이미 결정되는 것이요 뒷날을 기다린 뒤에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선생의 방계 후손인 이주가 이 실기에 한 마디 써 달라고 부탁하므로 감히 이상과 같이 변변치 않은 생각을 적는다.⁹⁸⁾

96) 정종로, 『입재별집』 권4, <菊潭實紀序>. “語其聲氣之相應求, 則有若鄭寒岡·張旅軒·吾先祖文莊公及一代諸名賢, 或以師或以友而與之遊焉.”

97) 정종로, 『입재집』 권26, <迂拙齋朴公實紀序>. “先生後裔履周, 要一言於實記, 敢書陋見如右云.” 두 서문을 지은 시기는 자세치 않으나, 박이주의 계보로 보아 『국담집』 서문이 앞선 듯하고 적어도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본다.

98) 정종로, <오졸재실기서>, 박한주, 『오졸재실기』 권1. “蓋自是以後, 人逾知道學之可尊, 名教之可守, 寧爲君子而死, 不欲爲小人而生, 寧爲君子而禍, 不欲爲小人而福, 則天下之取舍, 當於是定矣, 天之所定, 其在斯歟? 然而所謂禍福, 自其爲君

『오졸재실기』 소재 서문이다. ‘道學(之可尊)’·‘名教(之可守)’는 박한주의 정체 또는 존재 의의와 관련된 키워드이다. 그런데 『입재집』 소재 서문에는 이를 포함해 위 밑줄 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물론 『입재집』 편찬 때 산삭이 가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오졸재실기』 소재 서문에 가필된 것은 아닐까. 이런 추정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朴公”·“先生後裔履周”(입재집)와 “朴先生”·“先生傍裔履周”(오졸재실기)의 표현을 비교하면 섬세한 손질이 가해진 것은 후자라는 심증이 짙어진다. 내용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정종로는 박한주의 학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박한주와 점필재, 한·훤에 대해서도 ‘師’·‘同門’이라 했을 뿐 그 관계를 특별하지 않았다.⁹⁹⁾ ‘군자’라는 하나의 테마로 수미 일관되게 글을 꾸렸을 뿐이다. ‘도학, 명교’ 운운과 더불어 “先生之名, 如日星之昭揭.”(입재집)이 “先生之道, 如日星之昭揭.”(오졸재실기)로 되어 있는 것도 심상하지는 않다. 이것은 『오졸재실기』 서문에서 일종의 의도 즉 ‘도학자’ 박한주를 만들고자 한 의도를 읽게 한다.¹⁰⁰⁾ 『입재집』 소재 서문의 ‘군자’ 박한주가 문중의 손질에 의해 ‘도학자’ 박한주로 윤색된 것이다.

정종로는 박이주가 고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박한주와 박수춘을 엮어 말

子小人之時而已定, 有不待後日而定者. 故因先生傍裔履周, 要一言於實紀, 而敢書陋見如右云. 晉陽鄭宗魯序.”

- 99) 위의 글. “師焉而有佔畢齋, 同門而有寒暄一蠹, 同志而有秋江濯纓輩諸君子.”
- 100) 정종로는 박한주 문집 서문을 쓴 외에도, 김종직 문인으로 金駟孫·曹偉와 교유한 表浴沫(1449~1498)의 행장을 짓기도 했다. 이 행장은 함양 유림의 청으로 지은 것인데, 그중 “나는 일찍이 <무오당적>을 읽고 선생(표연말)에 관한 일 한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다. 그가 초기사림파 문인에 대해 관심과 정보를 다소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는 표연말이 교유한 사람 중에서 도학에는 “김한훤·정여창 두 선생”이 있고, 문장에는 조위·김일손등 제 군자들이 있다고 했다. 박한주의 이름은 도학 부분에는 물론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정종로, 『입재집』 권43, <藍溪表先生行狀>.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박이주가 두 문집의 서문을 정중로 한 사람에게 칭찬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는 가문의 차원에서 두 문집을 간행하여 가문을 현양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兩賢錄』의 간행이다.

『양현록』은 박한주·박수춘 두 사람의 유문을 합편한 것이다. 앞서 박한주·박수춘을 한 사당에 모시고 그 이름을 ‘양현묘’라고 일컬었는데,¹⁰¹⁾ 이제 두 사람의 문집을 한데 모아서 ‘양현록’이라 이름했다. 책은 전하지 않고, 蔡濟恭(1720~1799)의 서문만 남아 있다.¹⁰²⁾ 서문을 칭찬 하는 후손 朴慶秀·朴慶寅이다.¹⁰³⁾ 체제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어 서문을 짓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¹⁰⁴⁾ 그러나 박한주·박수춘이 함께 향사되고 두 사람의 문집이 비슷한 시기에 간행되었을 가능성과 어울려서 보면, 문중이 두 사람을 결합하여 가문을 현양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101) 趙廷旹, <南岡事實因禮曹關文論報營門>, 박수춘, 『국담집』 권3 부록. “後丁酉追享迂拙齋先生廟, 號兩賢廟.”

102) 蔡濟恭, 『樊巖集』 권32, <兩賢錄序>. “後之尙德之士併享一院, 稘集其遺文於禍故兵燹之餘, 得若干首, 名其書曰, 兩賢錄, 鉸諸梓以圖永久, 其志誠勤矣. 嗚呼! 兩先生之或出或處, 其事雖不同, 若其忠義, 較然不負所學, 未始不如印一本者, 以其道同也. 後之見賢思齊者學兩先生之道, 則是亦兩先生耳, 何必劬精於寂寥數編之間爲哉? 雖然, 道非在他, 斯編實載其道, 如求道, 舍是編何以哉?”

103) 위의 글. “感朴君慶秀·慶寅述其先父兄未卒之事而千里躬懇之誠, 忘其僭而書之如此.”

104) 체제공은 『양현록』 서문 외에도 박한주·박수춘과 관련된 사람들과 얽혀 있다. 체제공은 함안 덕암서원에 박한주와 함께 배향된 조종도의 문집 서문을 썼고, 박수춘의 문집 서문을 쓴 李光庭의 묘갈명을 짓기도 했다. 또 체제공의 제문을 쓴 사람은, 박한주·박수춘 두 사람의 문집 서문을 쓴 정중로이다.

4. 마무리 그리고 남은 문제들

① 본고의 문제의식은 『소학』 에피소드와 필문삼현에 대한 의문, 정확히 말하면 그 ‘기록’에 대한 의문에서 발단되었다. 그리고 이 의문을 품고 박한주 현양사업의 추이를 따라가면서 박한주의 이미지 형성 과정을 살펴봐왔다.

박한주 생애자료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그의 외손 주박이 찬한 <박한주 행장>이다. 이 글에는 忠孝를 겸비하고 興學明教에 힘쓰며 性理 학문에 잠심하고 朱子家禮를 준수하는 박한주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외 제자백가, 山經, 地誌, 장자·노자, 불교의 설을 탐구하고 『초사』 읽기를 특히 좋아했던 모습도 틈틈이 배어 있다. 사우 관계에서는 “김굉필·김일손과 함께 김종직 문하에서 수학했다.”¹⁰⁵⁾는 말 외에 특별한 언술은 없다. 아직은 특정 이데올로기로 규격화하지 않은 느슨한 박한주를 볼 수 있다. 이후 행장은 박한주 관련 기록의 바탕글 역할을 하는데, 시대와 찬자에 따라 내용에 다소간 변이가 발생한다.

현양사업의 추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먼저 입관 직전 정구가 묘역을 정비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박한주는 충신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함안 사람의 의도도 함께 작용했다. 이 단계에서는 박한주가 충신 이상의 도학자로 그려진 것 같지는 않다. 충신의 표상이 확립된 이후 도학자의 표상이 더해지는데 후자가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감을 볼 수 있다.

난후에는 밀양의 향촌질서를 재정비하는 작업과 연동되어 현양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박한주는 김종직과 연결되어 도학적 관점에서 재평가되었다. 여기에는 박수춘·안신의 역할이 지대했다. 특히 안신의

105) 주박, <박한주 행장>. “與金宏弼金駟孫, 遊學於佔畢齋之門.”

<밀주오현행적>은 박한주를 김종직과 도학 계보로 맺어 주어 박한주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7세기 중반을 전후해서는 박한주 현양이 예림서원과 여표비등 사회적 표식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에는 밀양 사립뿐만 아니라 당대 조야 유현들이 협력했다. 특히 조임도는 <박한주 행장>을 바탕으로 하되 『소학』 에피소드를 삽입하는 등 박한주를 김종직 도학의 적전으로 만드는 데 노력했다. 18세기 현양사업의 특징은 남강서원 배향, 청액소, 문집 간행 등에서 보듯이 박수춘과 결합한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그중 청액소는 사회적 표식 이상 국가적 공인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주목할 것은 청액소에서 한·원을 소환, 박한주와 결합하여 이들을 명백히 도통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충신의 표상 위에 도학자의 표상이 더해지고 도통론까지 가세하면서 박한주는 도학자의 전형으로 새겨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출현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소학』 에피소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길재에게서 내려오는 『소학』 중심의 도학을 이은 사람이 김숙자-김종직이고 그 도통이 김굉필-조광조로 이어졌다는 것이 조선 도통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다.¹⁰⁶⁾ 요컨대, 박한주를 김종직 도학의 적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학』이라는 매개가 필요했고, 이것이 『소학』 에피소드에 그의 이름이 어색하게 끼어들게 된 이유로 생각된다.

도학자 박한주를 만드는 데는 현양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들, 재지사족 특히 밀양 사림의 의지, 밀양 박씨 문중의 노력, 그리고 퇴계-한강 연원 학파의 협조가 공동으로 작용했다. 그 시도가 (지역의 한계를 넘어) 확장 과 공인의 측면에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¹⁰⁷⁾ 다만 도

106) 정성희, 『조선 도통론의 비판적 검토-김종직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31집, 한국유교학회, 2008, 171쪽.

107) 조임도가 여표비를 지은 10년쯤 뒤에 나온 밀양 읍지에는 충신 박한주가 되새겨져

학자 박한주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강화될수록 김종직이나 한·훤에 대한 경도 또는 의존이 심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가르침을 준 스승, 종이 교유했던 벗이었을 그들과 과도하게 결합되고 명명되면서 오히려 박한주는 왜소하게 제약되었다. 또한 도학자 박한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행장에서 더듬어졌던 아직은 유연하고 느슨한 (어쩌면 실체에 더 가까웠을) 박한주는 흐릿하게 사라져 버렸다.

② 여기에서 다시 박한주 자신이 지은 작품들을 돌아보게 된다. 그는 賦 3편, 記 2편을 남겼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 작품들에는 ‘유교국가의 비전과 도덕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분투’라는 대주제가 관류하고 있다. 이 중 <安宅記>는 仁을 유교의 근본으로 보고 복희~공자·맹자에 이르는 도통의 계보를 제시하고 있어 이목을 끈다. 그러나 동시에 가탁과 우의, 이야기로 엮기 등 효율적인 말하기 방식을 활용하고 문학적 역량을 다해 형상화한 이 작품들에서 우리는 ‘글 잘 쓰는 사람’ 박한주를 보게 된다.¹⁰⁸⁾ 『초사』 읽기를 좋아했다는 행장의 언급은 이런 박한주와 잘 어울리지 않는가.¹⁰⁹⁾

조선전기 詩賦 詞章之學은 사대부 문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 교양일 뿐만 아니라 당시 對明外交에서도 불가결한 능력이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경술과 함께 사장을 겸비한 문사가 요구되었고 김종직 일파가 그

있고, 도통론을 운위했던 남강서원 청액소는 환급되었다.

108) 김보경(2012), 앞의 논문 참조

109) 조선전기에 『초사』는 국가적으로 詩學의 교본으로 권장, 보급되었다. 성종대에는 都會所에 사서·오경 등을 하사하면서 또 『초사』·『고문진보』 등을 하사한 바 있다. 물론 『초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데는 문학적 수요에 더하여 忠君愛國 정신의 포양이라는 정치적 요소도 관여되어 있다. 조선전기 『초사』의 수용에 대해서는 김보경, 『용재 이행의 굴원 수용과 문학적 변용—동일화와 거리 두기 그 긴장과 공존』, 『동방한문학』 56집, 동방한문학회, 2013, 354~355쪽 참조.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다.¹¹⁰⁾ 박한주가 바로 그 경술과 문재를 겸비한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학』에 관해 말하면, 김종직 문도 사이에 『소학』이 증시되었고 그 문도 일부가 小學契에 참여하고 있었다.¹¹¹⁾ 어쩌면 박한주도 그 기류를 호흡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할 분명하고 충분한 증거는 아직 없다. 앞서 살폈던 『소학』 에피소드는 오히려 의심을 자아낼 뿐이다. 일부 연구에서 이를 근거로 그를 김종직 문인 중 경학 계열로 분류하고 있거니와 이는 신중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경술과 문재, 그 어느 한쪽만으로는 박한주의 온전한 얼굴을 복원할 수 없다. 성리 학문을 익히는 박한주, 도·불서도 버리지 않은 박한주, 『초사』 읽기를 좋아하고 글을 잘 썼던 박한주. 이것을 아우른 모습이야말로 당대 생생하게 살아있던 실존으로서의 박한주였으리라.

이는 물론 박한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초기사림과 문인들, 그에게 큰 언덕이 되었던 김종직, 한·훤이야말로 이 문제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예컨대, 근래에 보고된 바, 불교를 자신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문묘 배향자’ 정여창은 어떠한가.¹¹²⁾

우리가 기록/기억하고 있는 그들은 도학, 도통, 문묘, 서원의 이름으로 기록된 얼굴이 아닌지, 또 지금 우리는 다시 그들을 ‘초기사림파’라는 이름으로 분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박한주에 한해서 말하면,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초기사림과 문인이 대부분 그런 경향을 보이지만, 그는 누구보다 더 김종직과 한·훤에게 결박된 채 기록/기억되어 왔으므로 이중으로 왜소화(또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박한주 연구에서 이 점이 각별히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110) 이수진,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0, 270~271쪽.

111) 정경주, 『성종조 신진사류의 문학세계』, 법인문화사, 1993, 24쪽.

112) 노의찬, 「유학자 정여창의 불교적 삶」, 『영남학』 24집, 영남문화연구원, 2013 참조.

지면과 여력의 한계로 본고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군데군데 비워 놓은 문제들이 있다. 『함주지』 부록 <점필재사적> 및 『점필재집』 부록 <행록>, 『오졸재실기』 <교유문인록>에 수록된 趙光祖 등과의 관련, 이미지 형성 과정에서 다른 인물과의 同異, 그리고 현양사업이 진행된 사회적, 사상사적 맥락에 대한 입체적 논의 등.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金應祖, 『鶴沙集』. (한국문집총간 91)
- 金宗直, 『佔畢齋集』. (『이조명현집』,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李而楨, 『竹坡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朴壽春, 『菊潭集』. (한국문집총간 속 17)
- 朴漢柱, 『迂拙齋實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安 玗, 『五休堂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鄭 述, 『寒岡集』. (한국문집총간 53)
- 鄭宗魯, 『立齋集』. (한국문집총간 253~254)
- 趙任道, 『澗松集』. (한국문집총간 89)
- 蔡濟恭, 『樊巖集』. (한국문집총간)
- 『咸州志』. (『한국읍지총람 조선시대 사찬읍지』 23)
- 강창룡, 『16세기 사찬 읍지의 연구—『함주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1~104쪽.
- 김남이, 『조선전기 지성사의 관점에서 본 점필재와 그 문인들의 관계—초기 사림의 형성과 관련하여』, 『동방학』 23집, 동방한문학회, 2012, 7~44쪽.
- 김보경, 『유교국가의 비전과 도덕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분투—오졸재 박한주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5집, 동양한문학회, 2012, 5~35쪽.
- _____, 『용재 이행의 굴원 수용과 문학적 변용—동일화와 거리 두기 그 긴장과 공존』, 『동방한문학』 56집, 동방한문학회, 2013, 353~396쪽.
- 김영두, 『중종대 문묘 종사 논의와 조선 도통의 형성』, 『사학연구』 85집, 한국사학회, 2007, 39~76쪽.
- 김영우, 『일두 정여창의 성리설 고찰』, 『영남학』 24집, 영남문화연구원, 2013, 217~246쪽.
- 김윤수, 『점필재집의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35집, 서지학회, 2006, 303~327쪽.
- 남명학연구원 편,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1~554쪽.
- 노의찬, 『유학자 정여창의 불교적 삶』, 『영남학』 24집, 영남문화연구원, 2013, 247~277쪽.
- 박병련 외, 『남명학과와 영남우도의 사림』, 예문서원, 2004, 1~460쪽.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편,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 지식과 교양, 2011, 1~537쪽.
- 서강선, 『『점필재집』의 재판본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176쪽.
- 이병휴, 『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1~493쪽.
-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0, 1~289쪽.
- 이종범, 『무오사림 이원의 내면세계와 조선후기 현양사업의 추이』, 『역사학연구』 39집, 호남사학회, 2010, 1~34쪽.
- 장동표, 『예림서원의 건립 중수와 김종직 추승 활동』, 『역사와 경계』 64집, 부산 경남사학회, 2007, 1~28쪽.
- _____, 『17세기 밀양 재지사족 박수춘의 향촌활동과 도통』, 『역사와 경계』 83집, 부산 경남사학회, 2012, 1~35쪽.
- 정경주, 『성종조 신진사류의 문학세계』, 법인문화사, 1993, 1~353쪽.
- _____, 『밀양의 퇴계 학맥』, 『퇴계학과 한국문화』 31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2, 45~68쪽.
- _____, 『한훤당 김평필 도학의 전승 양상』, 『영남학』 22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7~34쪽.
- 정성희, 『조선 도통론의 비판적 검토-김종직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31집, 한국유교학회, 2008, 147~174쪽.
- 정출현, 『추강 남효온의 생애자료에 대한 변증과 탐색-한 인간의 삶을 재구하는 집성연보를 편찬하기 위한 서설』, 『대동한문학』 35집, 대동한문학회, 2011, 167~208쪽.

ABSTRACT

Image Creation Process of the Clan Members of
Initial Stage Salimpa(初期士林派)

Kim, Bo-kyeong*

Ohjojjae Park Han-joo(迂拙齋 朴漢柱, 1459-1504) was Kim Jong-jik(金宗直)'s clan member, and he amusingly shows the image creation process of the initial stage Salimpa, a Confucian School.

Among the lifetime materials of Park Han-joo, the earliest period material was Haengjang(行狀) compiled by his daughter's son, Ju Bak(周博). In Haengjang, loose Park Han-joo, who was yet to be standardized with specific ideology, can be viewed. Examining in relation with the trend of his exaltation, Park Han-joo emerged as the symbol of loyal subject, as Jung Goo(鄭述) reorganized the grave of Park Han-joo in Haman(咸安) and performed ancestral rites, just befor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Since then, the symbol as a moralist was added on top of the symbol as a loyal subject, and the symbol as a moralist was more fortifie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the exaltation of Park Han-joo was conducted in linkage with the reorganization of country order in Milyang(密陽). In such a process, Park Han-joo was re-evaluated from an ethical perspective in connection with Kim Jong-jik. The exaltation of Park Han-joo in about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was promoted as the type of social marking including Yerim Seowon(禮林書院) and Yeopyobi(閔表碑). In those days, an attempt to make Park Han-joo as Kim Jong-jik ethics' orthodox disciple was carried out. The exaltation of Park Han-joo in the 18th century was undertaken in combination with Park Su-choon(朴壽春), a sort of his grandchild. Especially, Sa-Aek-So, a public appeal of Namgang Seowon(南岡書院請額疏) was an effort to receive national official approval, which re-

*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Inje University, E-mail: keyneye@inje.ac.kr

enhanced the status of Park Han-joo from the moral perspective.

Concerning the main players of exaltation of Park Han-joo, a moralist, especially, the intention of Milyang Salim(密陽士林), efforts of Milyang Park Family and the cooperation of Yeonwon School of Toegye(退溪)–Hangang(寒岡) were jointly operated. Bottom line is that the true nature of Park Han-joo was restricted and underestimated, as he was named in excessive combination with Kim Jong-jik, Kim Goeng-pil(金宏弼) and Jeong Yeo-chang(鄭汝昌) in the process of making him a moralist.

Looking at the works Park Han-joo left, readers can meet him as a good writer that embodies the thematic consciousness of “Struggle for the Realization of Confucian Nation’s Vision and Social Morality” through his full literary competency. His true nature cannot be fully restored with only one side between studies researching Confucian Classics and literary talent. Park Han-joo learned Neo-Confucianism(性理), did not throw away Taoism and Buddhism books, loved to read the Chu Ci(楚辭) and was a good writer. All these images could be the vividly living existence of Park Han-joo.

We need to reflect on ourselves about whether what we remember or record are the faces planned in the names of ethics, Confucian shrine and Seowon (lecture hall) or whether we decorate the images of Park Han-joo in the name of initial stage Salimpa again. Since Park Han-joo was recorded and has been remembered being bound by Kim Jong-jik, Kim Goeng-pil and Jeong Yeo-chang more than anyone else, there is a huge possibility that he was underestimated or distorted in duplicate way. Attention should be especially paid to this in studying Park Han-joo.

Key Words Initial Stage Salimpa(初期士林派), Park Han-joo(朴漢柱), Kim Jong-jik(金宗直), Kim Goeng-pil(金宏弼), Jeong Yeo-chang(鄭汝昌), Exaltation, Image creation process, Loyal subject, Moralist

논문투고일 : 2014. 5. 18

심사완료일 : 2014. 5. 25

게재확정일 : 2014. 6. 2

